

**제목 Theme:**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Conquered Heaven**

**본문 Scripture:** 마태복음 **Matthew 11:12-19** 절

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and violent men take it by force."

13.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14.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찐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And if you are willing to accept it, John himself is Elijah who was to come."

15. 귀 있는 자는 들을찌어다 "He who has ears to hear, let him hear."

16.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But to what shall I compare this generation? It is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 places, who call out to the other children,"

17.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and say,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For John came neither eating nor drinking, and they say, 'He has a demon!'

19.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 "The Son of Man came eating and drinking, and they say, 'Behold, a gluttonous man and a drunkard, a friend of tax collectors and sinners!' Yet wisdom is vindicated by her deeds."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에 들어 올 수 있는 자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 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침노하는 자”라는 의미는 전쟁에서 빼앗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듯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본문이 전에 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을 때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열 두 제자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서 마지막이 곧 온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내용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철저히 메시야를 준비하는 엘리야의 입장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세상 왕과 우상들과 싸워 이긴 가장 무서운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엘리야처럼 메시야 즉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 심을 받아 세상에 심판을 지적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을 받고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성경으로 자신이 세례 요한이 기다리며 소개했던 메시야 즉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5 절**). 이것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마지막 사역이었고 이후에 순교를 당하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선지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천국이 열려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는 누구든지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를 의미하는 것이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라고 하신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차지하듯이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이 요한까지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메시야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구약의 약속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부터는 선지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12-15 절**). **로마서 3:21-24 절**에서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를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주님의 일에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뻐하며 노래하고 춤추지 않고, 죄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시대를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읍기서를 인용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세상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고, 세상적으로 즐기고 노래하고 춤추며 타락하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을 표현하신 내용입니다. 읍기서 **21** 장에서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 없이 새끼를 배도록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 보냄이 양 때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 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6-7 절**에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무서운 경고를 들었으면서 그에 대하여 몰랐고,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서운 경고를 무시할 뿐 아니라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하였고, 예수님께서 와서 세리들과 창기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함을 얻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19 절**).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수 많은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세리들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증거하는 것이요 이것을 통하여 지혜가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복음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시대부터는 천국을 스스로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천국을 차지해야 합니다(12 절)**

**1** 성도는 반드시 **천국의 시민을** 확립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20** 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 성도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7** 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3** 성도는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12** 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둘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경의 진리와 예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17 절)**

**1** 성도는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39** 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2**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42** 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려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3**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창세기 **5:24** 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째,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복음을 전하며 약한 자를 섬겨야** 합니다(**19** 절)

**1** 성도는 **복음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14** 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2** 성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15** 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3** 성도는 자선 사업이 아니라 복음 사업으로 **믿음을 실천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13** 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 갈라디아서 **6:9** 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찌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